"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일진하이솔루스 방문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23일 완주군 소재 일진하이솔루스(주)를 방문, 전북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후보는 일진하이솔루스(주) 관계자로부터 기업 현황과 수소모빌리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가진 곳은 일본의 도요타와 일진하이솔루스 단 2곳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은 수소전기차용 연료탱크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실행하는 등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 기업이 전북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수소 및 데이터 산업 등의 육성 기반을 마련해 혁신선도형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그린수소 생산단지, 수소모빌리티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3일 완주군 소재 일진하이솔루스(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을 바꿀 청년 후보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이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청년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매달 지반침하 · 하자보수 현황 제출하라" 요구

김윤덕 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KR)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지난해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지난해 말에는 18개소를 보수했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완료 대상개소를 해마다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수대상은 56구간 97개소(24.815km)인 반면에, 공주역 주변 등 11개소(2.088km)를 노반복원으로, 16개소(4.432km)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체결구 보수로 미비한 하자보수 진행을 보여왔다.

그나마 보수한 구간도 허용 침하량(30mm)의 2배에 가까운 60mm 이상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침하가 일어난 경부고속선은 하자보수 30mm 이하로, 강릉선은 10mm 이내로 마무리한 것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수결과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매달 호남고속선의 지반침하 및 하자보수 현황 제출 등을 요구했다.

/유호상기자

윤준병 의원 "제약산업 인력 양성 정읍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읍·고창)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180억(국비 126억, 지방비 5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22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 선정을 위해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와 정읍시, 전북대학교 약학대학과 수시로 만나 회의를 진행하며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했고, 지난 17일 대면평가를 거쳐 20일 전라북도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 국비 예산은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본예산 확보 진행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전북도·정읍시·전북대학교 약학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제약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읍시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소득이 보장되는 농림 축산업 실현"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농민기본소득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조기 지급한다"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와 함께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귀농·귀촌·원주민을 위한 "농촌민박을 4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농가의 부족한 수입원을 농가 외의 수입 창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농번기에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산물 수입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고충이 있을 수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적극 활용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비'를 확대 지원 하겠다.

또한 농작업 대행비와 농기계 임대사업 및 대형농기계 구입 보조정책을 확대 지원하는데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지역 농산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한우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목표를 세웠다.

축산 폐기물 및 분뇨의 심각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농가 수분조절제와 퇴비사'를 확대 지원하고 우량암소 혈통보존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기자

"시민 1인당 2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돌아가도록"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정성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는 23일 시외버스터미널 유세에서 "재임 중에 전체 시민 1인당 200만원 꼴로 일상회복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원마련 근거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장 직속으로 '어르신 섬김 위원회'를 설치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겠다"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장수수당' 10만원과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 세대에게 매달 '효도수당' 10만원 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읍면동 마을회관으로 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면사무소까지는 1000원을 받는 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하도록 조례를 고치겠다"며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3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의원, 한의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제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정책을 최우선 시정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일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약을 살 수 없어 부득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경미한 의료 불편을 덜어들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일각에서 불발될 것을 우려하지만, 시의회 3선의 경험으로 시정 예산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영대 의원 "이재명 전북 방문 민주당 후보에게 큰 힘 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구도, 영남과 호남과의 구도,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려왔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선거의 첫 일정을 전북으로 잡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0.7%p로 아깝게 졌지만, 전북에서 80.9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와의 박빙으로 예상되는 승부처에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만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이 지역의 굵직한 큰 현안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 위한 시 전용 배달앱 만들 것"

김종회 김제시장 후보

김종회 무소속 김제시장 후보는 20일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우리 김제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올 경제 시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이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김제시 전용 배달 앱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군산시에서 개발한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수수료가 거의 없는 김제시 전용 배달 앱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수익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여기에 기업 가맹점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단기 알바부터 장기 근무까지 구인 구직하는 게시판과 정보 공유, 플리 마켓 등의 기능도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개발할 김제시 전용 배달 앱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교육감 선거 '폭행 논란' 종지부 찍나?

당사자 교수는 "사실무근"

동석했던 교수들도 "어떤 폭행도 없었다" 증언

전북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 양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거석 후보의 전북대 총장 시절 제기된 폭행의혹 당사자인 A교수의 "폭행 사실은 없었다."는 자필 확인서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A교수는 23일 자필 확인서에서 폭행 관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입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확인서를 통해 "최근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자되는 폭행 사항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전북대학교 B교수도 2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목격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거짓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며 "어떤 폭행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B교수는 자신 외에도 동석했던 3명의 교수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확인한 바 자신의 증언과 같았다고 밝혔다.

한편, 천호성 후보측에서 주장한 '서거석 총장 폭행설'은 당사자가 직접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동석했던 교수들이 근거없는 거짓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근거가 통채로 흔들리게 됐다.

이에 서거석 후보 선대위는 "진실 규명은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정책선거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천호성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으니 자신의 말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장은성기자

천호성 후보 측, "폭행 사실 은폐, 검찰 수사 착수해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거석 총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폭행 피해 당시부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피해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며 "특히 항의행동을 4년 넘게 지속해왔던 이 모 교수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 서거석 후보의 폭행사실을 재확인하고 사과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천호성 선대본에서 발표한 이 모 교수의 입장문에 따르면 전북은 고향이고 제가 16년 넘게 교수로 재직한 곳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를 다룬 5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 중 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전북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저의 입장을 밝혀둡니다라는 내용이다.

천호성 선대본은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서거석 후보측의 피해자 회유와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전북대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도 충분한 정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갈 것이며, 특히 서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대 박 모 교수가 자신은 폭행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를 불법적인 선거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모 교수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는 폭력이 없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서거석 후보가 이모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녹취록도 거짓이라고 단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허위증언 논란을 피하고자 자신이 보는 앞에서는 폭행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결론은 서 후보의 폭력 사실과 녹취록 전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모 교수는 쿵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서거석 총장의 입술에서 피가 나, 화장실에서 씻었다는 증언을 했다.

끝으로 천호성 선대본은 "폭행 사실 은폐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